

#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도쿄를 세계 3대 국제회의 유치도시로 만든다	도쿄
문화·관광	3	시립박물관 현대화로 전시 질 높이고 새 건축모델 제시	뮌헨
	5	부영이 조각상 이용한 공공예술 이벤트 진행	버밍엄
산업·경제	7	관광수요 변화로 중저가호텔 공급 확대	시드니
사회·복지	9	해외여행자·귀국자 감염예방 가이드 공개	도쿄
환경·안전	11	건축물환경 종합성능 평가제도 업그레이드	오사카
	13	호주 최초로 도심림 확충·관리 지침 수립	멜버른
	15	용수제한 프로그램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	밴쿠버
도시교통	17	태양광 활용한 전자 주차표지 100여개 설치	시드니



## 도쿄를 세계 3대 국제회의 유치도시로 만든다

MICE 유치전략 수립...2024년까지 연간 330개 국제회의 개최

일본 도쿄都 / 산업·경제

- 도쿄都의 「도쿄 MICE 유치 전략」 수립 배경
  - 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
- MICE 개최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도시 간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지금까지의 국제회의는 대부분 구미 국가에서 개최되었지만, 최근 10년간 아시아의 점유율이 2배 이상 확대
  - 도쿄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경쟁 도시인 싱가포르나 서울 등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
- 「도쿄 MICE 유치 전략」의 목표 및 추진 분야
  - 2024년까지 연간 330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세계 3대 도시가 되는 것
  - MICE 개최 도시로서의 확고한 입지 구축
  - 중점 유치 추진분야
    - Convention: 의·약학 및 이·공학 계열 학술 분야
    - Meeting: 도쿄에서 사업 확장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는 해외기업
    - Incentive: 비용보다 도쿄의 다양한 매력을 중시하는 해외기업
    - Event/Exhibition: 향후 검토 예정

- 구체적인 MICE 유치 전략
  - 글로벌 대응 강화
    - 중점 분야를 타깃으로 MICE 관련 사업자와 연계한 세일즈 방법 검토
    - 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노하우를 가진 MICE 전문 인력 양성
    - 도시 간 협력조직을 통한 정보의 수집·활용
    - 해외의 회의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초청 여행 실시
  - 도쿄의 강점과 유효한 자원의 활용
    - MICE 개최 시 도쿄의 높은 기술력, 매력적인 자원 등을 살린 지원 메뉴의 개발·제공
    - 역사적 건축물이나 문화시설 등 독특한 장소의 이용 촉진
    -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투어나 체험 메뉴 등의 개발·제공
  - 관련 조직이나 단체와의 연계 촉진
    - 의·약학 및 이·공학계열 대학과 연계한 국제회의 유치 지원
    - MICE 관련 시설이 집적된 지역에서 관련 사업자와 연계한 유치환경 정비 촉진
  - 국내 타 도시와의 협력 체제 구축
    - 국내 체류형 포상여행의 유치 시 국내 타 도시와의 협력 체제 구축
    - 국제회의 및 기업회의 개최 시 주최자에게 국내도시 방문 프로그램 제안

<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5/07/70p7a100.htm>

<http://www.mlit.go.jp/kankocho/ko/shisaku/kokusai/mice.html>

# 문화·관광

## 시립박물관 현대화로 전시 질 높이고 새 건축모델 제시

독일 뮌헨市 / 문화·관광

- 뮌헨시립박물관 현대화 사업 개요
  - 시립박물관 구조의 현대화를 통한 전시의 질 제고
  - 뮌헨市의 위상에 맞는 새로운 건축모델 제시
  - 현대 박물관 기준에 맞춘 건축적·기술적 결함을 보완하고 박물관의 공개성 강화
- 사업시행자의 구상
  - 박물관 관람의 편의성 증진과 전시품목의 다양성 표출
    - 박물관 내부정원의 중앙에 박물관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내소를 설치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모든 전시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동선 마련
    - 내부정원에 들어서서는 순간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각의 전시장을 항목별로 연계
    - 전시물의 크기에 따라 층수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내부건물의 벽면은 구조변경이 가능하게 설계
- 뮌헨시의 구상
  - 주변 도시공간과의 조화
    - 주변의 시장 및 광장과 박물관 건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박물관이 지역의 중심부 역할 수행
    - 사업시행자도 주변에 위치한 유대인 회당 및 뮌헨 유대인 박물관과의 조화를 염두에 둔 설계를 제안



새 박물관 조감도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baureferat/wettbewerbsergebnisse/stadtmuseum.html>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baureferat/wettbewerbsergebnisse/stadtmuseum/stadtmuseum\\_rang\\_eins.html](http://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baureferat/wettbewerbsergebnisse/stadtmuseum/stadtmuseum_rang_eins.html)

## 부엉이 조각상 이용한 공공예술 이벤트 진행

영국 버밍엄시 / 문화·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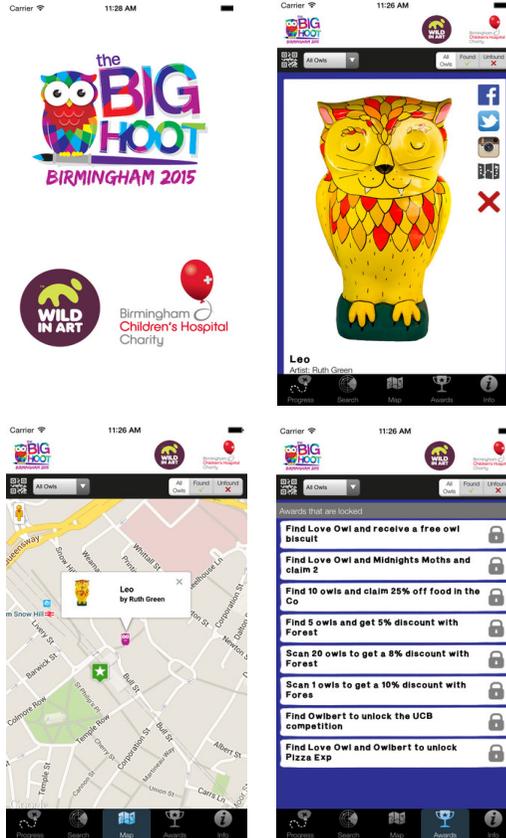
- 2015 버밍엄 큰 부엉이 이벤트(The BIG HOOT Birmingham 2015)
  - 이 공공예술 이벤트는 버밍엄시와 많은 기업이 후원하고 버밍엄 어린이병원과 와일드 인 아트(Wild in Art)가 주관하는 행사로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됨.
  - 이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은 버밍엄의 다양한 명소를 탐방하고 나아가 버밍엄 어린이병원을 후원할 수 있음.



각기 다른 콘셉트로 디자인된 부엉이 조형물들

- 이벤트의 주요 내용
  - 이 이벤트를 위해 각각 개성 있게 디자인된 큰 부엉이 조형물 90개를 버밍엄시 전역에 설치
    -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부엉이 조형물들을 찾아다니며 버밍엄의 아름다운 광장과 건물, 역사 깊은 문화유적지 탐방
    - 부엉이 조형물은 유명인사 부엉이, 이집트 피라미드 부엉이 등 역사, 사람, 장소,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디자인

- 이 이벤트는 스마트폰의 큰 부엉이 앱(The Big Hoot app)을 내려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부엉이를 찾은 후 QR 코드를 스캔하면 부엉이 비스킷 등의 선물이 제공됨.



‘큰 부엉이 이벤트(The BIG HOOT)’의 스마트폰 앱

- 10주간의 이벤트가 종료되면 큰 부엉이 조형물은 경매에 부쳐지고 여기서 생긴 수익은 버밍엄 어린이병원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

<http://thebighoot.co.uk/the-cubes-newest-resident-is-a-wide-eyed-wonder/>

<http://www.wildinart.co.uk/about>

# 산업·경제

## 관광수요 변화로 중저가호텔 공급 확대

호주 시드니市 / 산업·경제

- 시드니市는 지난 1월 ‘관광객 숙박시설 실행 계획(Visitor Accommodation Action Plan)’의 초안 마련
  
- 목적
  - 관광객들의 특성과 선호하는 숙박시설 공급
  - 기존 숙박시설의 리모델링과 신규 숙박시설 공급을 위한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
  -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
  - 장기적인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숙박시설의 공급 지원
  
- 배경
  - 관광산업은 시드니 경제의 주요 부분으로 2012년 약 5조 원의 경제적 기여를 함.
  - 유럽, 북미, 일본의 관광객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광객은 크게 증가
  - 기존 관광객들이 도심의 고급호텔을 선호한 반면, 최근 관광객들은 3성급 이하 호텔을 선호하며 도심보다 외곽에 위치한 숙박시설의 예약률이 더 높음.
  
- 관광 현황
  - 시드니는 호주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는 도시로 2012년 1,0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
  - 지난 10년간 호텔 숙박객은 매년 100만 명씩 증가
  - 시드니에는 약 20,300개(2013년 현재)의 객실이 있으며 이 중 80%가 호텔임.
  - 호텔의 85%가 4성급 이상이며 15%가 3성급 이하임.
  - 전체 호텔의 1/3이 40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대형호텔로 대부분 도심에 위치
  - 전체 객실의 예약률(2012년 통계)은 84.6%로 매우 높은 편임.

- 관광객 숙박시설 실행계획(안)
- 숙박시설 투자 및 개발에 우호적인 환경 구축
  - 숙박시설 개발 제안자와 투자자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숙박시설 개발지침서(Accommodation Development Guide)’ 마련
  - 주정부무역·투자부(Department of Trade and Investment)와의 협력을 위한 개발 관련 데이터 제공 및 연구수행
  - 투자에 필요한 자원(resources)과 수행능력 조사
  - 투자와 개발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 마련
- 적절한 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시의 도시계획 권한 검토
  - 관광객 숙박시설을 도심 토지이용 전략의 최우선으로 고려
  - 도심 숙박시설의 용적률을 제고하되 상업 및 주거 빌딩의 용적률보다는 낮게 유지
  - 주요 재개발지역과 관광명소 주변 숙박시설 개발의 장애요인을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rezoning)을 고려
  - 주거건물 재개발업자들에게 숙박시설 건설을 장려하고 특히 고급호텔보다는 3성급 이하의 호텔 건설에 승인 우선권을 부여
  - 3성급 이하의 호텔 개발자에게 개발 부담금 및 문화재 보호 용적률 등과 관련된 규제 완화
- 숙박시설 수요·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5년마다 숙박시설 수요·공급 현황을 검토하며 필요할 경우 시의 도시계획 정책 재검토

<http://www.sydneymedia.com.au/hotel-action-plan-to-support-growing-tourism-market/>

# 사회·복지

## 해외여행자·귀국자 감염예방 가이드 공개

일본 도쿄都 / 사회·복지

- 도쿄都는 해외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 정보와 귀국 후의 건강관리 등을 정리한 ‘해외여행자·귀국자 감염예방 가이드’를 공개
- 가이드의 주요 내용
  - 여행지의 감염정보 수집방법과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주소와 QR 코드로 제공
  - ‘귀국 후에 증세가 있는 경우’와 ‘귀국 후 몸 관리’ 등의 방안
  - 해외에서 감염되는 주요 병의 리스트, 감염 경로, 증상 등
  - 귀국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진단절차 등



‘해외여행자·귀국자 감염예방 가이드’의 일부 내용

- 가이드의 배포
  - ‘해외여행자·귀국자 감염예방 가이드’는 7월 17일부터 도내 4곳의 여권센터에서 무료로 배포

- 도내 여행사 등에서도 배포 예정
- 도쿄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iryu/kansen/yoboguide.html>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iryu/kansen/yoboguide.files/yobo.guide-mihiraki.pdf>

<http://news.mynavi.jp/news/2015/07/13/391/>

<http://resemom.jp/article/2015/07/13/25724.html>

# 환경·안전

## 건축물환경 종합성능 평가제도 업그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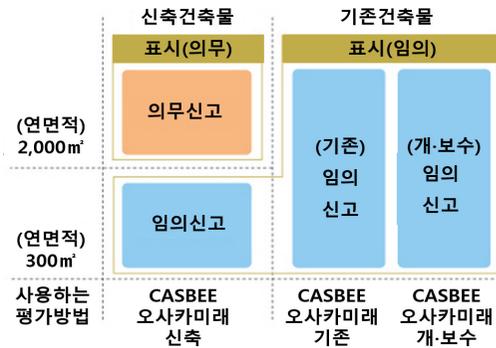
일본 오사카시 / 환경·안전

- 오사카시는 2015년 4월부터 기존의 「건축물종합 환경평가제도」에 ‘에너지절약기준 적합의무’와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설비의 도입 의무’를 추가한 새로운 CASBEE 오사카미래의 평가제도를 시행함.
  - CASBEE(건축물종합 환경평가제도, 建築物総合環境評価制度)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사무실 모집 광고 등에 건물의 환경성능을 표시하는 제도
- CASBEE의 배경
  - 지구 온난화와 열섬 현상 등을 예방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
  - 환경친화적 건축물이 시장에서 고평가되는 구조를 구축
- CASBEE의 주요 내용
  -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시 건축주는 오사카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사카시에 신고
  - 소규모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증·개축 시에는 임의신고
  - 건축주와 설계자는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재활용 성능 등 친환경 건축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실내 환경의 쾌적성, 건축물의 수명, 경관에 대한 항목 등을 포함한 건축물의 종합적인 환경성능을 평가



오사카시의 '건축물환경 성능표시' 평가표

- CASBEE 평가 항목
  - Q 항목은 건축물의 내부와 현장의 환경 품질·성능(Quality) 등을 평가
    - 실내 온도나 환기 등의 실내 환경과 기능성 평가
    - 건축물의 내진성과 녹화 등을 평가
  - L 항목은 에너지 소비를 비롯한 건축물의 외부 환경 부하(Load)를 평가
    -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열섬 대책 등을 평가
  
- 새로이 추가된 평가 항목
  -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의무
    -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개축 시 에너지절약법(에너지 사용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화
  -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설비의 도입 검토 의무화
    -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개축할 경우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설비의 도입을 의무화



<http://www.city.osaka.lg.jp/toshikeikaku/page/0000114438.html#CASBEE>

<http://www.city.osaka.lg.jp/toshikeikaku/page/0000114438.html>

<http://www.city.osaka.lg.jp/toshikeikaku/cmsfiles/contents/0000114/114438/syuutiVer.4.0.pdf>

## 호주 최초로 도심림 확충·관리 지침 수립

호주 멜버른市 / 환경·안전

- 멜버른市는 2014년 ‘도심림 전략(Urban Forest Strategy)’에 이어 실행계획의 하나로 ‘도심림 확충·관리 지침(How to grow an Urban Forest)’을 수립
  
- 배경
  - 멜버른시의 독특한 도시경관 재건
  - 도심림의 고령화와 고사(枯死)로 관리비용 증가
  - 도시 열섬 현상 등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나무로 변경할 필요
  - 멜버른시의 나무들은 적절한 관리 부재 시 10년 후 27%, 20년 후 44%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도심림 현황
  - 멜버른시에는 현재 9만여 그루의 나무가 있으며 이 중 보호를 받는 나무의 면적은 도심 전체면적의 22%에 달함.
  - 많은 나무가 수령 100년 이상으로 고령의 상태임.
  - 기후변화로 도심림 훼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늘 면적이 감소
  
- 도심림 재건을 위한 원칙과 전략
  
- 도심림 재건을 위한 원칙
  - 도심림의 종류와 수명의 다양화를 통해 기후변화 등에 대비
  - 도심 열섬 현상 완화
  - 시민의 건강과 웰빙을 고려한 녹지 공간 설계
  - 생태학적 다양성 증가 및 건강한 생태계 조성
  - 효율적으로 도심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도입
  - 도심림 연구 활성화 및 도시경관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 장려

- 도심림 재건을 위한 실행 전략
  - 향후 2040년까지 도심림의 그늘 면적을 현재 22%에서 40%로 증가
  - 수목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특정 종(種)이 전체의 5%, 특정 속(屬)이 전체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식수(植樹) 설계
  -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뛰어난 나무를 심고, 시의 모든 나무에 대해 매년 건강검진
  - 도심림 관리에 ‘물 순환 관리형 도시설계(water sensitive urban design)’ 방식을 도입하고 나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토지습도 관리
  - 도시생태계 및 생태다양성 전략을 구축하고 도시화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종을 보호
  - 도심림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제고 및 정책개발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
  
- 도심림 증가를 위한 세부지침
  - 지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우선순위 파악
  - 지역 내 도심림 전략실행의 걸림돌을 파악하고 도심림의 혜택을 지방정부 정책의 주요 전략적 목표와 연계
  - 도심림 전략 실행의 필요성을 문서화하고 이를 지방정부 정책에 전달 및 반영
  - 도심림의 목록과 지역사회의 인식 등 각종 정보 및 가용한 자원 파악
  - 지역 내 도심림 현황 정보 수집 및 도심림 전략에서 제시된 목표치와의 편차 파악
  - 시각적 이미지와 매핑(mapping) 기법을 활용한 연구결과 제시 및 분석
  - 비전과 목표, 세부일정 등을 제시하여 지역사회 주민 및 정책담당자와 공유

<http://www.melbourne.vic.gov.au/AboutCouncil/MediaReleases/Pages/Australianfirstguideforurbanforestrylaunched.aspx>

[https://www.melbourne.vic.gov.au/Sustainability/UrbanForest/Documents/Urban\\_Forest\\_Strategy.pdf](https://www.melbourne.vic.gov.au/Sustainability/UrbanForest/Documents/Urban_Forest_Strategy.pdf)

<http://2020vision.com.au/media/41948/urban-forest-strategy-workbook.pdf>

## 용수제한 프로그램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

캐나다 밴쿠버시 / 환경·안전

- 밴쿠버시는 극심한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7월 20일부터 밴쿠버 광역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3단계 용수제한 프로그램을 시행
- 3단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주거지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잔디에 물 주기 금지
  - 정원, 채소밭, 관상용 수목 등에는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물을 주어야 하며, 스프링클러나 호스의 사용은 금지
  - 상업용 차량의 세차는 가능하나 개인용 자동차와 보트 등의 세차는 금지
  - 개인용 수영장, 스파, 연못 등도 물의 사용 금지
- 기타 사항
  - 물을 이용하는 시설물(예, 분수대 등)은 물의 재활용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
  - 음수대 등은 수도꼭지에 센서가 있거나 물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수도꼭지에 한해 허용
  - 7월 말부터는 도시 내 위치한 모든 골프장에도 용수공급 중단
  - 시정부 공용차량의 세차는 안전과 직결되는 거울, 차량 내 램프, 창문 등을 부분적으로 검사하여 세차를 허용
  - 이번 프로그램은 물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반 시 약 2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3단계 용수제한 프로그램

<http://vancouver.ca/news-calendar/stage-three-water-restrictions-now-in-effect.aspx>

<http://vancouver.ca/home-property-development/understanding-watering-restrictions.aspx>

<http://www.theprovince.com/drought+rating+hits+highest+possible+level+more+water+restrictions+possible/11217098/story.html>

# 도시교통

## 태양광 활용한 전자 주차표지 100여개 설치

호주 시드니市 / 도시교통

- 시드니市는 시내 100여 곳에 전자표지 디스플레이(E-link, Electronic Paper Displays)를 설치하여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
- 현행 주차표지의 문제점
  -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려다 보니 짧은 시간에 운전자가 해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E-link의 주차정보 제공방법
  - 미리 지정해 놓은 시간이나 일별로 각기 다른 주차정보를 제공
  - 주차표지는 무선통신을 통해 중앙운영센터와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며 태양열 패널에 미리 세팅된 주차정보를 표시
  - 특정 이벤트 기간에는 불법 주·정차 정보를 표시
- E-link의 장점
  - 전자표지 디스플레이 기술은 에너지 소비 절감 외에도 임시로 설치되는 많은 도로표지판의 대체가 가능
  - E-link 주차표지는 텀퍼 검지기(tamper detector)를 포함하고 있어 밤낮의 조도에 따라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므로 운전자의 정보 인식률 제고



E-link 주차표지로 특정일의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표시한 사례  
(3월 23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11시)



E-link 주차표지로 특정일의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표시한 사례  
(2013년 12월 31일 화요일 오전 6시~2014년 1월 1일 수요일 오전 4시)

<http://www.citylab.com/tech/2015/07/sydney-declutters-traffic-signs-by-using-e-ink/399050/>

<http://www.eink.com/>